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8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연중 제18주간		
연중 제19주간		
연중 제20주간		
연중 제21주간		
연중 제22주간		

그물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63번 "순례자의 노래" 1,2절을 부릅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들이 주님 나라의 성실한 일꾼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47절–5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 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려는 순간 "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28년의 세월을 너무나 허송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집행 중지명령이 내려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답니다.

저승의 입구에서 돌아온 그는 그 후, 사형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매일, 매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세계적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 였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든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화해하겠다든가 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집, 땅 등을 사거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이 설문조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은근히 뒤로 미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 1년 후에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1년을 보내고 싶습니까?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3번 "순례자의 노래" 3,4절을 부릅시다.

'NAN 3분 발언대'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진행합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요한 복음서 13,34-35절

새 계명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② 가족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천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아 봅시다. (가족 중 한사람이 모아진 의견들을 A4용지에 적습니다.)
③ 모아진 의견들 중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화를 통해서 간추려 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서로의 숨겨진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보

기 위한 'NAN 3분 발언대'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다함께 살펴보세요.

TV 방송국 K본부의 대표적인 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 지금 해외에서 명왕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홍길동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기자?

기자 – NAN 방송국의 홍길동입니다. 저는 지금 명왕성으로 가는 우주선 안에 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원숭이 치치가 타고 있고, 이쪽을 보시면 최첨단 장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30초 후면 우주선이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하는데.....

앵커 – 홍길동 기자? 홍길동 기자?

기자 – NAN~! (난) 우주선에 갇혔고! 치치가 문 잠그며 나갔을 뿐이고! 명왕성 왕복만 33년 걸리고! 엄마 칠순잔치 준비해야 하는데 갔다 오면 내가 칠순일 뿐이고!

생각 나누기

① 한 명씩 돌아가면서 'NAN 3분 발언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3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단, **모든 문장의 시작은 NAN~!(난)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

NAN~! 온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NAN~! 하루에 한번 모든 가족이 함께 포옹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NAN~!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NAN~!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NAN~! 한 달 용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NAN~! 온 가족이 가정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AN~! 평소에 가족들에게 소홀히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NAN~!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NAN~!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② 'NAN 3분 발언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함께 실천해요!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AN'의 숨겨진 매력

행복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대화습관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집중을 하면서 솔직하고, 정확하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가 주어가 아닌 '나'를 주어로 하는 '나-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게 되면 뒤에 따라붙는 표현들이 긍정적으로 순화되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NAN~!' 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NUN~!' (넌) 으로 시작하는 비난과 경멸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너는 도대체가 어떻게 되먹은 사람이냐?",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소리냐?", "너는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너는 안 돼!".....

외모를 가꾸기 위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가꾸기 위해 마음의 거울을 보는 것도 항상 기억합시다.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가정기도는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모임길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역할배분 2

이번 호에서는 복음나누기 진행자, 교육담당, 선교담당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나누기 진행자의 역할

① 복음나누기 7단계 진행 순서를 모임 전에 충분히 숙지합니다.
② 소공동체 모임의 진행이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합니다.
③ 모임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또박또박 멘트를 읽어가며 진행합니다.
④ 자신이 먼저 나서서 기도, 성경낭독, 묵상나누기 등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⑤ 특히, 6단계에서 지난 주 활동 나눔 및 활동 계획 수립 시, 각 담당이 자신의 역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 봉사활동 담당자의 활동 나눔 안내 등)

교육담당의 역할

교육담당은 6단계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고 쓰기의 기쁨'을 미리 공부하고, 간략하게 설명할 준비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고 쓰기의 기쁨' 미리 공부한 다음, 6단계 공부시간에 구성원들에게 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5분 분량의 다른 교리상식을 준비해 구성원들과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임 이외의 시간에 성경공부 혹은 교리공부가 필요하면 교육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해 준비해

도 좋고, 본당에 성경공부 혹은 교리강좌가 있으면 구성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교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메모해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참여해도 좋다.)

④ 어린이를 위한 첫영성체 교육, 청소년 주일학교 등록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담당의 역할

선교담당은 6단계에서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소공동체 선교현황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선교담당은 "이번 중 저희 소공동체에 새롭게 전입된 신자는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냉담자이고, 한 분은 외짝교우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냉담자 회두 및 가정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① 월간/주간 별 구역·반 전출입 상황을 본당 사무실과 연락해 메모해 두거나, 반장에게 보고합니다.

② 구역·반 냉담자와 외짝교우 현황도 수시로 메모해, 가정방문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③ 구역·반 내 입교권면 활동을 수립합니다. 본당 입교시기, 세례식 일자를 파악해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④ 역 주변, 공원 등에서 가두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⑤ 소공동체 선교일지를 따로 작성해둡니다.

⑥ 복음나누기 6단계의 활동 나눔 시, 각종 선교활동을 구성원들과 함께 세워볼 수 있습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배둔공소 소공동체 이야기

사목국

공소지도자연수가 있었던 지난 6월, 배둔공소 회장님께서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 주셨습니다. 얼마 전 공소 카페를 만들었는데, 들어와서 공소 식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다시며 카페 주소를 알려주셨지요. 대부분의 공소 신자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다는 편견 때문인지 공소에서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본당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동체 모임이 공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둔공소에서 지금처럼 소공동체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7~8년 정도 전에 소공동체 모임을 가지긴 했으나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지요. 올해 황용숙 바오로 형제님께서 공소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2월부터 새롭게 소공동체 모임을 만들었고, 지난 4월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카페운영은 바오로 회장님과 부인이신 체사리아 자매님께서 맡고 계시고요.

주일 공소예절에 나오시는 분이 25분 내외,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7~8분으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신자 분들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모임이 밤에 있다 보니 참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매월 본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받아 참고하며, 꾸준히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나누기 7단계도 큰 부담을 가지기보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체험과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하셨지요.

공소의 여러 활동이 소공동체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다들 열심한 분들이다 보니 공소 활동에 자연스

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소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 신자 권면에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소 활동도 소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공소 소식이며 본당 소식, 공소예절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그날의 모습을 카페에 고스란히 담아두시고 소공동체 폴더를 따로 만들어 모임을 공지하고, 복음나누기 7단계 각 단계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올려두신 모습에서, 공소와 소공동체에 대한 배둔공소 신자 분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소공동체 모임이 주저되고 있습니다. 배둔공소 소공동체 이야기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 푸르게 절망을 다 덮는다는 '담쟁이'라는 시가 생각 난 것은 우연은 아니겠지요? 작은 공소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소공동체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합니다.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푸르게 세상을 덮어 나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공소 설립 27주년 기념 사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분류되나요?

사목국

성경을 읽다보면 같은 성경이더라도 글의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 이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나 표현 방식, 저자 등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1. 구약성경의 분류 (46권)

(1) 모세오경 : 창세기 ,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과 계율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에 다섯 권의 '율법서'라는 의미로 '오경'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모세와 관련되어서 진행되기에 모세 오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 역사서 : 여호수아기로부터 마카베오기 하권까지 (16권)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여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는 하느님의 뜻과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들이기에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3) 시서와 지혜서 :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7권)

→ 시문체로 기록되어 있거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지혜문학은 '인간의 삶'이나 '존재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욥기, 잠언, 코헬렛, 지혜서, 집회서가 여기에 속합니다.

(4) 예언서 : 이사야서, 예레미아서, 애가,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바룩서와 12권의 소 예언서

→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느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비판하는 일을 담당했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에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2. 신약성경의 분류 (27권)

(1) 복음서 :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 (4권)

→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르코복음서의 첫 구절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나온 것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핵심단어였기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복음은 성경 중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2) 서간 :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부터 유다서간까지 (21권)

→ 부활의 놀라움을 체험한 사도들은 각지로 전도여행을 떠나며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수가 모자랐기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떠나 온 공동체를 돌보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어 예수 부활의 의미도 알리고, 그곳 신자들에게 이런 저런 당부도 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독려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떠나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낸 이 편지글이 서간입니다.

(3) 행전 : 사도행전 (1권)

→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4) 묵시록 : 요한 묵시록 (1권)

→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를 동원하여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신애(韓新愛·아가다)

- 한국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 -

김길수 · 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한신애(? ~ 1801) 아가다는 한국천주교 최초의 여회장으로 탁월한 지도자였던 강완숙(姜完淑) 골롬바와 함께 활동한 여성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충청도 보령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다. 장성한 뒤에 한양에서 살던 조례산의 후처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던 1795 ~ 1796년경 여회장 강완숙의 전교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다. 남녀와 적서의 차별이 심했던 조선사회 여건에서 강완숙과 살아온 처지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매우 친숙한 사이가 되었다. 이때부터 전처의 딸인 조혜의(趙惠義)와 함께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사학징의(邪學懲義)」에는 한신애 아가다가 강완숙의 집에 수십일씩 머물렀으며 주문모 신부에게서 영세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무렵 강완숙은 황사영이 백서에서 말한 대로 조선에서 남녀를 통틀어 가장 신뢰받던 여회장으로 주문모 신부의 모든 사목활동을 극비밀리에 수행하시도록 헌신하고 그의 집에서 집회를 열고 교리공부와

기도 특히 여러 계층의 부녀자들을 모아 신심수련과 신앙생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거기에 한신애가 여러 날 머물렀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 강완숙과 함께 선교활동과 독특한 여성운동 및 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신애 아가다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 여러 가지로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아가다는 다시 열심하고 교리에 밝은 남자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우선 종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남도 아닌 그녀의 아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자신의 종인 소명을 강완숙의 집으로 보내 교리도 배우고 그 댁의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집안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천주교의 매파"라고 불림 받았던 김연이(金連伊) 율리아나를 비롯한 많은 여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중에 김연이는 폐궁으로 불리던 양제궁을 드나들면서 왕실의 친족인 송 마리아와 그의 며느리 신 마리아, 궁녀 강경복 등을 안내하여 주문모 신부께서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시켰으며 강완숙의 부탁을 받고 김계완 시몬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고 공식적으로 박해령이 내려진 뒤에도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 알렉시오를 자신의 집에 피신하도록 숨겨주었던 여성 지도자였다.

마침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옴을 느끼는 중에도 그녀들은 태연했다. 이때 정복혜 간디다는 일반 평민 노파로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는 이점을 이용하여 교회 안의 남녀교우들과 지도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정복혜는 강완숙과 한신애를 도와 많은 일을 했는데 박해가 일어나자 교우들이 체포되니 흩어져 있던 교회서적과 성물들을 거두어 왔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는 등 헌신적 활동을 했었다. 한신애는 정복혜가 거두어 온 교회서적과 물건들을 지니고 있음이 얼마나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양반신분이니 오히려 안전하게 보관하리라 생각하고 서적과 성물들을 도맡아 자기 집에 감추어 두는 용기와 열정을 보여 주었다.

한신애 아가다는 중인 이함규, 양반 정광수와 함께 성서를 강독하였다. 그는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양반과 상민의 차별을 두던 때, 남녀유별이라 하여 신분과 계급의 차이로 사회기강을 세우려던 통념에 구애되지 않는 선각적 여성지도의 면목을 보여주었다. 남녀가 함께 성서강독을 하게 하였고 신분에 구애됨 없이 교류하며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살았다.

한신애의 이 같은 폭넓은 활동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졌고 1801년 음

력 2월에 동료들과 함께 체포당했다. 형조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하였으나 그녀는 굳게 신앙을 지키며 의연하였으니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당시 형조에서 한신애 아가다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한신애는 천주교에 빠져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천해왔으며 …… 강완숙과 체결하여 주문모를 찾아보고 세례와 세례명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각처의 남녀 무리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서적과 교회물건들을 곳간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된 후에는 '스스로 지은 죄를 생각해보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이기경편《벽위편》권2 참조)

한신애 아가다는 한국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로서 품위와 헌신, 용기와 인내를 다 보여주고 그의 영원한 영적동지 강완숙, 김연이 등 동료 8명과 함께 사형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숨겼던 교회서적과 성물들은 우리가 지금 서적과 성물들을 신앙생활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고 있는지 조용히 생각하게 한다.

알 림

⋙가정사목국

가나혼인강좌

일 시: 2010년 8월 15일(주일) 13:00

장 소: 마산교구청 강당

대 상: 혼인성사를 앞둔 미혼 남녀

문 의: 055) 249-7028~9, Fax.249-7100

신청서는 각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발행처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발행일 2010년 8월 1일 발행(매월 1일) | 전화 055-249-7021~3 | 전송 055-249-7024
이메일 masamok@hanmail.net